

# 마을 밝히는 장구소리

장수 문화예술인 생생마을 살아보기 '호응'

국악기 연주자 등 예술인 4명 참여

농촌에 문화·예술 통한 활력 불어넣어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문화예술인이 귀농인 집에 1~2개월 직접 살아보는 '문화예술인 생생마을 살아보기'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생생마을 살아보기'는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전라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귀농귀촌형 문화예술인 레지던시 사업으로 올해 11월까지 장수군 원장안 마을에서 장수문화예술협동조합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4인의 문화예술인이 이번 사업에 참가하며, 국악기 연주자를 비롯해 화가, 미술 전시 활동가, 전자책 작가가 참여한다.

첫 참가자는 가야금 연주자 전문수(29)씨로, 주민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다양한 국악기를 소개하고 연주해 농촌마을에 문화와 예술을 통한 활력을 불어넣었다.

마을부녀회는 주 2회씩 장구를 배우기로 하는 등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문화예술인과의 교류 및 주민 문화 향유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원장안마을 부녀회장 김명자씨 "장구를 치고 민요를 배우는 시간이 좋아 바쁜 농사일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꼬박꼬박 나온다"며 "부녀회 장구단을 만들어 지역 행사에 나가 공연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장수문화예술협동조합은 장수문화예술촌(이하 '예술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전문작가 단체로, 예술촌은 2020년 전국 군 단위로는 최초로 문제부의 '꿈꾸는 예술터' 사업에 선정돼 지역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으로 재탄생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 경력단절여성 취업 후 10명 중 7명 '고용 유지'

도내 군 단위 농촌지역 거주 환경 따라 자발적 퇴사가 대부분

향후 취업지원시 지역 특성 고려 시간제 일자리 등 연계 필요

전북광역·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운애 센터장)는 7월 말 기준 고용유지현황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72.7%)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200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 1항에 따라 설치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전문취업상담사 활용, 경력단절여성의 전공, 경력,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대상별 욕구에 맞춘 다양하고 전문적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가 주요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년 1월과 7월 연 2회 실시하는 상용분야 취업자 고용유지율 조사는 새일센터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여성들의 일자리 유지비율 조사를 취업지원 로드맵,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유용성 파악으로 취업여성 고용유지와 재이탈 방지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모색을 위

한다. 2019년 직종별 상용직 취업자는 제조분야가 전체 21.4%(538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건·의료분야 461명(18.3%), 사무회계 404명(16%), 사회복지 15.2%(384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용분야 취업자 중 직종별 고용유지율을 분석한 결과 여성친화직종이라 할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에서 20.7%(380명)으로 고용유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제조분야 19.5%, 사무회계와 사회복지분야가 15.9%로 조사됐다.

더불어 재취업 성공 후 중도 탈락한 686명을 분석한 결과 개인 사유로는 자녀와 가족 돌봄(4.1%), 건강, 이사, 직장 부적응 263명(38.3%) 등이며, 근무환경 열악 27명(4%)과 계약기간 만료, 폐업 71명(10.3%)이 기업사유에 의한 퇴

직이다. 특이할만한 점은 개인 퇴직사유 중 집안사정에 의한 퇴직이 73명(10.6%)로 도내 군 단위 농촌지역 거주 환경에 따라 작물재배 등 계절적인 요인에 따른 자발적 퇴사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돼 향후 취업지원 시 구직역성과의 초기 심층상담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간제 일자리 등 유연근무가 가능한 일자리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운애 센터장은 "고용유지율조사는 경력단절여성 대상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일·생활 균형 보장으로 고용유지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며 "고용유지 분석을 통한 취업지원프로그램 발굴·확대, 취업 후 재이탈 방지를 위한 지원책 실효성 검토와 방안 모색은 물론 지역 특성과 대상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상용분야 취업자 고용유지율' 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취업지원팀 063-254-36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전주문화논총' 제3집 연구논문 모집

지역 문화정책 제반 연구 담아

전주문화재단, 10월 9일까지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10월 9일까지 지역 문화정책에 관한 제반 연구를 담은 '전주문화논총 제3집' 연구논문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전주문화논총 제3집' 모집내용은 전주의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고고문화인류학·역사적 고찰 및 활용 제안과 전주문화에 대한 모든 연구이며, 분야는 기획논문과 자유논문이다.

재단에 따르면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분야 학자와 지역 내 뜻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논문투고를 바라며, 최대 5편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논문은 100만원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투고지역은 공동저자를 포함해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이면 투고가능하며, 원고분량은 20자 원고지 150매 이내다.

접수는 전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jcf.or.kr)에서 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jcf\_run@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jcf.or.kr)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전주문화논총 제2집'은 주요한 문화정책변화 및 움직임 방향 등에 대해 살피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총 5편이 수록됐으며, 전주의 지역문화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출간한 '전주문화논총' 제2집은 전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이번 전주문화논총 제3집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주의 역사·문화유산과 지역문화의 가치를 알려드리길 바란다"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분야 소장 전문가와 지역 내 뜻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투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JB문화통신원, 상반기

비대면 간담회 진행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 이하 재단)은 'JB문화통신원' 상반기 간담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JB문화통신원은 문화·관광·예술에 대한 국민 중심의 생생한 소식 전달 체계를 마련해 온라인 소식지 '마중 뉴스레터'에 전라북도 문화관광 전반의 소식을 제공하고, 재단이 지역과 함께 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홍보하는 홍보요원으로서 14개 시·군의 18명 문화통신원이 활동 중이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운영한 이번 간담회는 하반기 역량강화워크숍 및 특집 취재 등 주요 운영 프로그램과 향후 활동에 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정인 홍보팀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취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JB문화통신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 감사한 마음이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도민에게 문화관광의 다양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JB문화통신원은 '보다(문화관광 현장)', '찾다(숨은 문화·인재)', '있다(재단 사업)'의 영역으로 취재 영역을 나눠 7월 현재 98건(매월 1회, 18명 통신원)의 14개 시·군 문화예술 소식을 아카이빙(archiving)했다.

/장은성 기자



# 내실 있는 운영·지역사회 역할 높이 평가

진안역사박물관,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2회 연속 '우수'

진안군은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안역사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결과 우수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2017년 평가인증제에 이어 2회 연속 우수인증기관에 선정된 것으로, 진안역사박물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역 사회에서의 역할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공립박물관 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평가인증제는 박물관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전국 227개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박물관 운영의 전문성과 적정성, 소장품

관리와 전시·교육 운영 성과 등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2회 연속 평가인증제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진안역사박물관은 2006년 개관한 진안군 유일의 종합박물관으로, 진안의 역사문화를 종합적으로 전시·교육하고,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

진안군에서는 이번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우수인증기관 선정에 계기로 지역의 공립박물관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진안의 역사문화를 널리 알리고, 군민의 수준 높은 역사문화체험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박물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익산시, '가람시조문학신인상' 공모

최근 3년간 작품 발표 시조시인 대상 내달 10일까지

익산시는 3일 지역 출신 가람 이병기 선생의 문학작품과 고귀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가람시조문학신인상' 대상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공모전은 시조문학 발전에 기여한 유능하고 역량 있는 시조시인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공모 부문은 문학상에 선정된 적이 없는 지면상으로 발표된 시조 작품으로 9월 10일까지 공모하면 된다.

10년 미만 경력의 시조시인(2010년 8월 1일 이후 등단)으로 최근 3년간(2017년 8월~2020년 7월) 우수한 작품(또는 작품집)을 발표한 시조시인이면 공모할 수 있다.

응모 방법은 소정의 공모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

접수의 경우 9월 10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가람시조문학신인상 수상자(작품 포함)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람시조문학상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수상자에게는 1천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

수상자 발표는 익산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며 시상식은 11월 7일 가람문화관에서 가람시조문학제와 함께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조하거나 가람문화관 ☎ 063-832-1891 또는 익산시 문화관광산업과 ☎ 063-859-527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창작 경력 20년 이상 시조시인에게 주어지는 '제40회 가람시조문학상'은 추천제로 진행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 문화도시 익산 '공유와 확산' 3차 포럼 성료

익산시가 문제부가 추진하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31일 왕도미래유산센터(구 익곡수리조합)에서 문화도시 익산 '공유와 확산' 3차 포럼을 개최했다.

3번째로 열린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의 대표 역사전통도시인 부여군, 안동시, 김해시의 활동가들이 모여 역사·전통문화도시들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했다.

안녕소사이터티 안영호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3차 포럼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소영 연구위원의 '역사와 전통으로 통하다'는 주제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사비공예문화산업지원센터 오희영센터장, 안동축제관광재단 임정혁 팀장, 김해문화재단 전현주 과장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각 도시의 참여자들과 익산시민들의 토론으로 역사와 전통문화의 가치, 역사문화의 관광자원화 등에 대해 열린 토론을 나누었다.



'공유와 확산' 포럼은 지난 5월부터 문화도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열린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타 지역의 전문가 그룹을 초청해 총 여섯가지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첫 번째 포럼은 지난 5월 22일 '문화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두 번째는 '문화도시지원으로 도시재생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주제로 6월 19일 진행됐다.

/익산=장양원 기자